

변화속에 우리의 정체성

민영백

(주) 민 설계 회장/IFI 차기회장

먼저 이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영호 학회장님이하 전국에서 오신 실내디자인 학과 교수님들 앞에 평생 실무만 해온 저로서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실내디자인 학회가 1992년 출범할 때 제가 KOSID회장으로서 여기계신 여러분과 학회 창립문제로 가졌던 첫 만남의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국실내디자인학회(KIID)는 1992년 창립 이래 대내적으로는 KOSID, ICC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IDEC, 중국의 CIID, 일본의 JIID 등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한중일 3개국 학회인 AIDIA를 주도적으로 이끈 것은 큰 성과이며 2000년에 가졌던 Millennium Congress를 통해 세계적으로 우리 범 디자인계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여기 계신 여러분 각 개인의 헌신적인 노력이며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인적교류가 이루어낸, 우리 학계, 업계, 사회에 기여한 성과라고 봅니다.

세계실내건축가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Interior Architects / Designers)은 1963년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선도적인 디자이너들이 주축이 되어 코펜하겐에서 창립 되었습니다. IFI의 정의는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분야의 정체성을 추구하고, 각국의 실내건축/디자인협회의 활동을 통하여, 디자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재고하고 실내건축가/디자이너의 자질 향상과 디자인 및 디자인 교육을 통한 환경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더 나은 삶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IFI는 그 동안 산업디자인단체(ICSID) 및 시각디자인단체(ICOGRADA)와 더불어 세계 디자인 3대 단체로서 매 6년마다 합동총회를 하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또한, ICSID주도하에 3단체의 통합을 추진해 왔는데 그 첫 번째 단계로 IDA(International Design Alliance)의 이름으로 합동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ICOGRADA와 ICSID는 찬성했고, IFI는 협력은 계속하되 IDA에는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 두 단체는 구체적 일정 하에 IDA의 사무국 후보도시의 선정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성남의 The Korea Design Center도 17개 후보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디자인 각 분야의 경계가 흐려지고 각각의 정체성, 존립의 위기에서 오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IFI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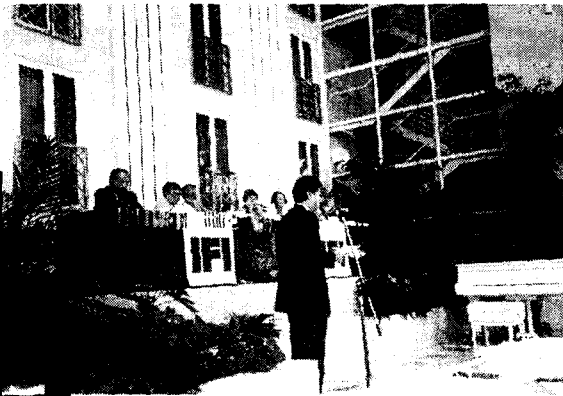
국제연맹으로서의 IFI는 각개인의 특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지역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고, 정부나 그 산하단체의 지원 없이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IFI의 주요 활동은 매년 3, 4 회씩 각 지역 도시에서 갖는 이사회, 매 2년 회기에 갖는

총회와 그 주최도시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를 통해서 세계의 유명 건축가와 디자이너, 학계의 관계자들, 젊은



The newly elected IFI Board for 2001-2003 at the IFI General Assembly at the East Rand School of the Arts. Des Laubscher, Olle Anderson, Young Baek Min, Pierre Lo, Peter Joehnk, Shrikant Nivasarkar and Roberto Negrete



14th IFI General Assembly in Bergen, Norway, Young Baek Min representing Korea

디자이너들이 만나 PRO VITAE, WING과 같은 workshop을 가지며, Design for All Award를 수여하고 각 나라 회원들의 작품을 게재하는 연감을 발행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교육적인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PRO VITAE(FOR LIFE) /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라는 뜻)라는 라틴어으로써 IFI의 추구하는 목적과 정체성을 함축성 있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달후 저는 IFI 회장직을 맡게 됩니다. 그 동안 IFI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사무실 및 조직 운영 등의 현안들에 대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IFI는 40년 전통을 가진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단체입니다. 먼저 세계 3단체(IFI, ICSID, ICOGRADA) 중에서 아시아계로는 최초로 제가 회장이 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큰 행운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은 사실 IFI의 열린 마음, 자유, 나눔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세계가 유럽중심에서 아시아로 관심을 돌리고 있음을 의미하며, 글로벌화의 일환으로 아시아의 분출하는 에너지에 대한 기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4년 동안 임원으로서의 검증을 통하여, 2년의 차기회장으로서의 활동, 앞으로 2년 기간의 회장임기 그리고 퇴임회장으로서 임기인 2년의 시간, 약 십년의 기간 동안 저는 IFI에 종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저의 책임은, IFI 회원 이었으나 냉담해진 북미 및 남미 지역의 단체와 신생 협회들, 동구라파의 체코, 유고슬라비아, 소



All the flags of the workshop delegates

련 등을 독려해서 명실상부한 세계조직으로서 균등한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적으로 후원사의 협조를 공고히 하고, 사무국의 활성화, 회원들에 대한 봉사과 그들에게 유익한 기회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또한 회원의 확대를 도모하고, 더욱 견고하고 균형 있는 회원간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올해



PRO VITAE Project (2000-2001) in Brazil "Toys for Rehabilitation"

총회에서 가입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개념적이고 궁극적인 이상에만 치우쳤던 문제들을 현안으로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IFI International Design Award"와 같은 실무현업 디자이너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현실적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교육계, 업계, 산업을 가깝게 연결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협회가 한걸음 더 앞서 나가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취임을 계기로 IFI 사무국을 아시아 지역에, 가능하다면 서울에 옮겨 오는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회원들에게 가장 빠른 정보를 제공하여 각 협회, 각 학회, 그리고 산업을 연결시켜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능력 있는 디자이너와 교육자들이 더 자신 있게 우리에게 밀려오는 도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즉 '우리의 정체성 확립'의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격동의 20세기를 지나 21세기의 문턱, IT와 Digital Technology, 문화경쟁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그 동안 경제, 사회, 문화의 발달로 우리 디자인계도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양적인 면에 비하여 질적으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글로벌시대에 흔히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가장 한국적인 것인가'라는 물음에 명쾌한 해답을 내리기 힘든 실정입니다.

원래, 디자인이라는 창작활동은 옛날 것, 남의 것의 모방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개념과 내용의 해석 없이 겉모습과 부분적인 특징들만을 모방하는 것은 단지 카피일 뿐이요 디자이너로서의 정체성과 창의성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문화의 장벽은 무너졌고,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경향(trend)적이고 대중의 취향 및 인기영합(popularity)에 급급하여, 상업주의로 이끌리어 변화되기 쉽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부정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디자이너 (opinion leader)들이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자들이 올바른 문화의식의 확립으로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는 지나친

우월감이나 또는 열등의식에서 벗어나 열린 사고로서 여유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문화라는 것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비록 바람에 흔들리지만 부러지지 않고 오랜 세월을 통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디자이너의 창작활동은 끊임없는 자기도전이며 성공과 좌절에는 항상 고독한 자기성찰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 인생에도 몇 번의 좌절이 있었으며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디자인이라는 뿌리가 없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의 뿌리는 디자인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의 방황, 갈등 그리고 어려움의 해결책을 디자인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였고 주변을 돌아볼 틈도 없이 열심히 일에 매달렸습니다. 세월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젊은 시절, 두려운 것 없이 열심히 일하던 초심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s)고 되 뇌이며 저는 지금 제가 일을 시작하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현실을 직시하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정체성 확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어진 역할과 본분을 지키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며 더 나아가 가장 한국적인 것, 가장 세계적인 것을 찾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창의적인 지식을 만들어 내기위해 수고한 결과로써 오늘의 훌륭한 자리를 이끌어 낸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에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